

‘수박먹GO 열씨구종GO 추억쌍GO’

진안 동향 수박축제 다음 달 6~7일 열려 체험·전시 등 풍성

청정 고랭지 지역인 진안군 동향면(면장 상진명)은 오는 8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GO! GO! 3GO! 아삭아삭 수박먹GO!, 열씨구종GO!, 추억쌍GO!”를 테마로 수박축제가 개최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물고기잡기 체험, 천연샴푸 만들기, 법진공예, 리본공예, 샛다리 건너기, 수박하우스 체험 등 휴가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행사들로 꾸며졌으며, 특히 운동장에 비치 예정인 대형 물놀이풀장과 터널분수는 무더운 여름을 한방에 날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향면 체련공원에서 제2회 동향면민의 날 행사를 겸해 개최되는 제8회 진안고원 동향 한여름 수박축제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 행사와 체험·전시·판매 등의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거리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축제 분위기를 한층 돋운다는 계획이다. 특히 동향수박은 지역특성상 20℃이상의 일교차가 큰 고랭지 기후의 영향으로 아삭한 식감과 12rix이상의 당도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동향수박을 무한 판매 예정인 가운데 행사기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체련공원 특설무대에서는 짝짝 수박경매, 수박퀴즈 등 각종 참여 행사를 통해 민면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장이 마련되고, 아마추어 공연 및 즉석 장기자랑, 노래자랑, 초대 가수 공연, 평양민속예술단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성진면 면장은 “뛰어난 맛과 품질로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시원한 동향수박을 마음껏 맛보고,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다양한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무더위를 잠시나마 식히고 동향에서 멋진 추억을 담아가셨으면 좋겠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은 28일 관내 22개 단체와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무주군,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

관내 22개 단체와 협약 마을가꾸기 사업과 연계 민간주도 정화활동 지원

무주군은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22개 단체와 행복홀씨 입양사업(민들레 홀씨처럼 행복이 세상에 퍼져나가고 하는 활동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와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를 앞두고 깨끗한 거리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식은 행복홀씨 입양사업 개요와 양해각서에 대해 설명하고 단체별 확정기간 공유와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무주군과 참여 단체들이 서명한 협약서에는 아껴쓰는 마을가꾸기 사업과 연계해 민간주도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정화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과 △매월 1회 이상 자율적으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한다는 내용, 그리고 △입양단체와의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한다

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행복홀씨 입양사업 동참 의사를 밝힌 무주시니어클럽을 비롯한 무주군 태권도협회와 설천면 청년회 등 22개 단체는 앞으로 무주군 6개 읍면의 공원과 유원지, 명소, 하천 등 일정한 구간을 담당 구역으로 정해 매달 정기적으로(매월 1회 이상) 청소(생활쓰레기, 영농폐기물 수거 / 종량제 봉투와 청소도구 등은 군에서 지원)와 경관정비를 위한 꽃가꾸기 등을 진행하게 된다.

황 군수는 “주민의식이 살아나야 결국 깨끗한 무주도 부자되는 군민도 실현이 가능하다”며,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이 지역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의식을 일깨우고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 무주를 반짝반짝 윤기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군은 앞으로 참여 기관 및 단체, 개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와 지원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으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와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손님맞이 준비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 시내버스 노선 이렇게 바뀌어요

군, 다음 달 1일~26일까지 마을 순회 설명회 개최

완주군이 삼례읍과 이서면 지역에 환승기반의 시간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초안이 마련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26일까지 노선개편과 관련한 찾아가는 마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찾아가는 마을 순회설명회는 시내버스 시간선제 노선개편 우선시행지역인 삼례읍, 이서면을 비롯하여 일부 노선이 변경되는 봉동읍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대표자가 군 건설교통과와 해당 읍·면에 직접방문 또는 유선 신청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번 완주군 지역 노선개편 핵심은 삼례읍과 이서면 전역 및 봉동읍 일부지역 시간선제 도입, △나머지

읍·면 노선 현행유지 △삼례 해진마을, 주공아파트, 이서 예코2차아파트 등 버스 미운행지역 신규노선 운행 △완주군 내부 지역간(이서~삼례, 삼례~봉동~용진~고산) 연결노선 신설이다.

군은 마을 순회설명회를 통해 실제로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직접 노선개편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주시와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적극 협의해 노선개편 운행노선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강성영 교통행정팀장은 “노선개편 목표시점인 올해 10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으나, 목표시점에 맞춘 무리한 시행보다는 철저히 준비하여 과거 전주·완주 시간선제 도입 실패가 되풀이 되지 않고 주민들의 환승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마을순회 설명회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로 마을 주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완주군 교통행정팀(전화 290-2809) 또는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은 노선개편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 마을방문 주민의견 청취, 이장단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TF팀 소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전주시, 용역사,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장수군 와룡자연휴양림 물썰매장·수영장 개장

가족단위 관광객 많이 찾아

장수군 와룡자연휴양림이 물썰매장과 수영장을 개장하고 여름 휴가철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550m 고지에 자리 잡고 있는 와룡자연휴양림은 산골관광휴양지로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등 36실의 숙박시설과 야영데크, 평상 등 89개의 편의시설이 들어서 있다.

특히 여름이면 대형풀(14×25m), 어린이풀(150㎡), 썰매장(2,208㎡), 미끄럼틀(높이4m, 연장3m) 등을 갖추고 있는 수영장과 물썰매장을 개장해 아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또한 와룡자연휴양림의 맑고 차가운 계곡수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다. 수영장과 물썰매장은 오는 8월 21일



장수군 와룡자연휴양림이 물썰매장과 수영장을 개장했다.

까지 와룡자연휴양림 입장객에게 한해 오전(10~12시)·오후(2~4시)로 두 차례 운영되며 입장료는 어른은 6,000원, 어린이는 4,000원이다. 장수군은 수영장과 물썰매장 내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방역소독과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시설 이용객들의 편의와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 덕유대 야영장은 캠핑 마니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덕유산국립공원, 피서지로 ‘각광’

휴가철 맞아 20여 만명 방문 무주구천동 등 인산인해 이뤄

덕유산국립공원(소장 홍대의)은 전국적으로 잦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무더위를 피해 수많은 인파들이 덕유산을 방문하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든 지난 28일부터 28일까지 공원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20여만 명의 탐방객이 덕유산을 방문했다.

덕유산은 ‘무주구천동 33경’이 유명하다. 월하탄(15경)에서 백련사(32경) 구간까지 구간통계국 줄기를 따라 탐방로가 이어져 있어, 연일 트레킹을

즐기는 사람들이 빽빽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덕유대 야영장(500동)은 천혜의 대자연속에 자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생태체험이 가능해 캠핑 마니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인터넷 사전 예약제 운영)

아울러, 향적봉(1,614m)과 남덕유산(1,507m)을 잇는 능선에 원추리, 풍자꽃, 비비추, 산수국, 등 다양한 야생화들이 만개하며 여름 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덕유산국립공원 행정과장 최동준은 “덕유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안성 하수관로 정비사업 착수

무주군은 안성면 공정리 둔담과 외담, 내담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 한다고 밝혔다.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일원에서 진행되는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3억 원(국비 16억 원, 지방비 7억 원)을 투입해 1백여 가구에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75㎡/일 평균)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7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수관로 3.1km와 배수설비 4.4km를 설치하게 된다.

올 7월 현재 무주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73%로 안성 3단계 하수관로 정

비사업이 완료되면 74%가 된다.

무주군 시설사업소 하수도담당 이형재는 “이 지역의 하수관로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생활하수가 안성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송돼 처리되므로 생활환경은 물론, 용담댐 수질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안성면 금령리 일원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국비를 확보해 2018년도부터 진행할 예정으로 상수도 미급수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업비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 공사를 병행하는 방향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국립공원

진안군, 벗짚환원사업 신청 접수

진안군은 논 토양보전 및 지역증진을 위하여 벗짚환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비 1억4,700만원을 투입해 0.1ha이상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 벗짚을 잘게 잘라 경운작업이 완료되면 현지 조사 후 ha당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벼농사를 짓는 농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벗짚환원사업으로 지력이 떨어지고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여 생산량이 감소한 논에 벗짚을 환원함으로써 벼생육에 필요한 미량성분 공급, 지온상승, 유용 미생물 증식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지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쌀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벗짚환원사업을 통해 비료와 퇴비 사용을 줄임으로써 생산비 절감은 물론, 고품질 쌀 생산과 친환경 면적 증대 등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벼 재배농가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토종어류 방류행사 가져

장수군과 전북도 민물고기 연구소는 수생생태계 먹이사슬 보호와 유역환경 조성을 위해 28일 오전 11시 토종어류 방류 행사를 가졌다.

이날 공무원과 환경단체회원, 지역주민 등 60여명은 장수읍 의안호와 관내하천 10개소에서 지역 토종어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붕어 4만마와 소가리 만마를 방류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방류행사를 통해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과 하천 생태계의 환경보전을 물론 지역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종어류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경찰, 통합 ‘솔루션-팀’ 위촉

장수경찰서(서장 윤종섭)는 28일, 아동·노인·장애인학대 문제를 포괄하여 사회적 약자의 종합적 피해 보호·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통합 솔루션-팀’ 위촉식 및 사례발표를 가졌다.

‘통합 솔루션-팀’은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을 비롯하여 분야별 지역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심층적인 가정폭력 문제와 더불어 아동·노인·장애인 학대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민·관 협력기구이다.

이날 장수경찰서는 생활안전과장을 위원장으로, 군청 드림스타트 팀장, 장수군 청소년상담센터 팀장, 군청 주민복지실 사례관리사 등 3명을 ‘통합 솔루션-팀’ 위원으로 위촉한 후 사례발표 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경찰 청렴동아리 복무기강 확립 간담회

무주경찰서(서장 최성규) 청렴동아리 김유창 회장은 회원 20여명과 28일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읍주운전경찰, 성회용, 예방 등 의무위반 근절과 청렴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학교점담경찰관 성추문 사건, 금품수사 등 연이어 터진 경찰 비리도 복무기강 확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 되고 있어, 최우선 과제로 의무위반예방과 청렴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을 다음 달부터 매주 1회씩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최 서장은 “경찰관의 의무위반행위는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임을 명심해 준 감찰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의무위반행위가 발생지 않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진안군은 28일 현재 운영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10월까지 한 국환경공단에 의뢰해 기술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진단은 공공처리시설의 고장으로 인한 가동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 및 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기술진단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시설개선의 타당성 검토와 효율적 운영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처리장 전반에 대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기술진단의 범위는 가축분뇨의 반입지점부터 방류까지의 전 과정에

대하여 공정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의 전문 진단요원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계통별 진단장비를 통한 측정 등 효율을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기술진단을 통하여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예산절감과 수처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 개선방법, 처리효율이 우수한 설비적용 방안 등에 대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